

# TRADE FOCUS

2025년 12호

##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동향분석실 도원빈 수석연구원

---

TRADE FOCUS 2025년 12호

##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장상식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2025년 5월 29일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 CONTENTS

<b>01</b>	<b>연구배경</b> .....	04
<b>02</b>	<b>한-미 무역수지 동향</b> .....	06
<b>03</b>	<b>한-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b> .....	09
	분석방법 개요 .....	09
	❶ 경쟁력요인(= ㉠中 대체효과 + ㉡실질경쟁력요인) .....	11
	❷ 수요요인 .....	15
	❸ 상품구성요인 .....	18
	요약 .....	20
<b>04</b>	<b>대미투자 확대 영향</b> .....	21
<b>05</b>	<b>결론 및 시사점</b> .....	24
<b>부록1</b>	<b>무역통계 편차 발생 원인</b> .....	26
<b>부록2</b>	<b>품목분류 기준</b> .....	27
<b>참고문헌</b>	.....	28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향분석실 도원빈 수석연구원



02-6000-5848



wonbin.doh@kita.or.kr

## 요약

2024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699억 달러로, 2021년보다 369억 달러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앞으로도 상호관세 외에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추가 압박이 예상되므로,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불변시장점유율(CMS) 모형을 기반으로 2021년 대비 2024년 동안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366억 달러)를 경쟁력 요인<sup>①</sup>(= 中대체효과<sup>Ⓐ</sup> + 실질경쟁력요인<sup>Ⓑ</sup>), 수요요인<sup>②</sup>, 상품구성요인<sup>③</sup>으로 분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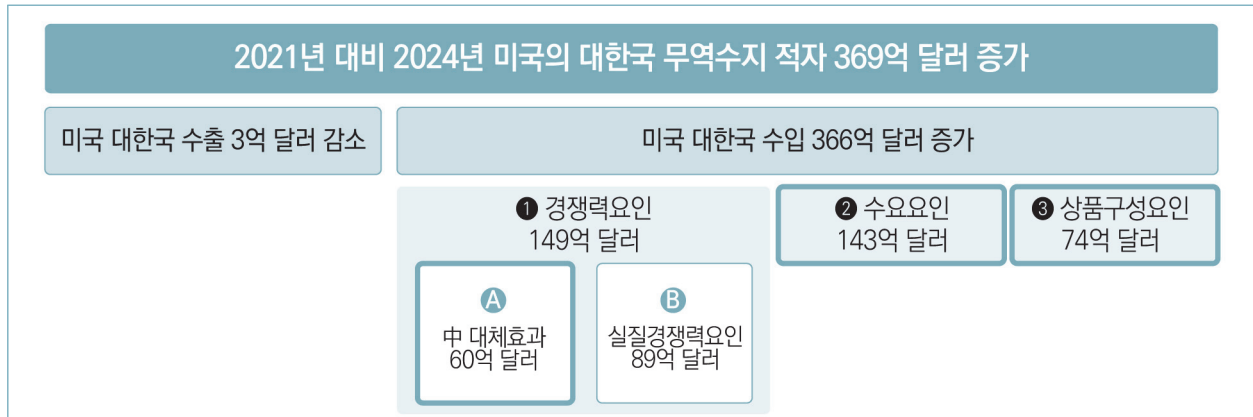
**경쟁력 요인<sup>①</sup>**은 제품 품질·가격·무역환경 변화로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며,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대체효과<sup>Ⓐ</sup>**는 미국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을, **실질경쟁력 요인<sup>Ⓑ</sup>**은 중국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자체가 향상되어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액 366억 달러 중 **149억 달러**가 경쟁력 요인에 기인하며, 그 중 **60억 달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한국으로 전환한 결과, **89억 달러**는 실질경쟁력 상승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수요요인<sup>②</sup>**은 미국의 경제 성장과 내수 활성화로 전체 수입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이다. 같은 기간 143억 달러가 이 요인에 해당한다.

**상품구성요인<sup>③</sup>**은 미국 수입 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산 주요 품목(예: 자동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366억 달러 중 74억 달러가 이 요인에 기인한다.

종합하면 2021년 대비 2024년 동안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총 369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 중 277억 달러<sup>Ⓐ+②+③</sup>는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에 기여했거나(중국산 제품 대체<sup>Ⓐ</sup>),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sup>②</sup> 및 수입구조의 변화<sup>③</sup>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다. 즉, 이는 우리 기업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따른 인위적인 불균형으로 보기 어렵다.

### ▶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증가 요인별 분석 - CMS 분석 결과



자료: UN Comtrade,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이 밖에도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 현지 진출 한국 기업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 연속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2021년부터 4년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 미국에 위치한 한국 기업으로의 중간재 수출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46.8%로 상위 10대 적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다만 대미 투자가 유발하는 한-미 무역수지 불균형은 향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으로의 투자·진출이 장기화될수록 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 본사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한국 본사 매입 비중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현지 매입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3.8%포인트 확대되었다. 진출 초기에는 현지 공급처가 부족해 주로 한국에서 물자를 조달하지만, 투자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현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현지 조달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지 매입 비중 증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관계사’가 아닌 ‘기타’ 현지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은 관계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 새로운 공급처를 적극적으로 발굴·거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배경으로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상실, ▲첨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 약화, ▲핵심 공급망 약화, ▲국방·산업 기반의 해외 적성국 의존도 심화 등을 지적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이러한 미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제조업 파트너이자 투자 협력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미국으로의 투자 및 진출이 지속·장기화됨에 따라 한-미 간 무역 불균형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I 연구배경

### ■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 및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관세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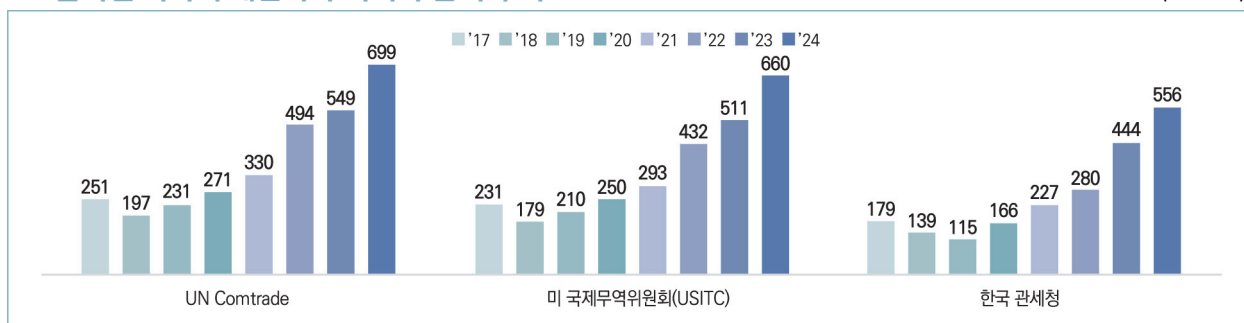
- 상호관세율은 10%를 기본으로 하며, 미국의 상위 적자국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 적용<sup>1)</sup>
  - 각 국가에 매겨지는 관세율은 미국과 해당 국가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율<sup>2)</sup>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한국(25%), 일본(24%) 등 미국의 상위 적자국에 고율의 관세가 매겨짐

### ■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 각 통계의 출처별로 금액은 조금씩 상이하나, 미국의 대한국 적자가 2024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모든 자료상에서 확인이 가능했음
- 2024년 적자금액은 국제기관 통계인 UN Comtrade상에서 699억 달러로 가장 크게 집계되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660억 달러)와 한국 관세청 출처의 자료(556억 달러)는 상대적으로 적자금액이 작게 집계

#### 📊 출처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금액 추이

(억 달러)



주 : 한국 관세청 자료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통계 편차 발생 원인은 [부록1] 참고  
 자료 : UN Comtrade,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한국 관세청

1) "President Trump will impose an individualized reciprocal higher tariff on the countries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the largest trade deficits. All other countries will continue to be subject to the original 10% tariff baseline." (The White House, 2025.4.2.)  
 2) "Reciprocal tariffs are calculated as the tariff rate necessary to balance bilateral trade deficits between the U.S. and each of our trading partners." (USTR, 20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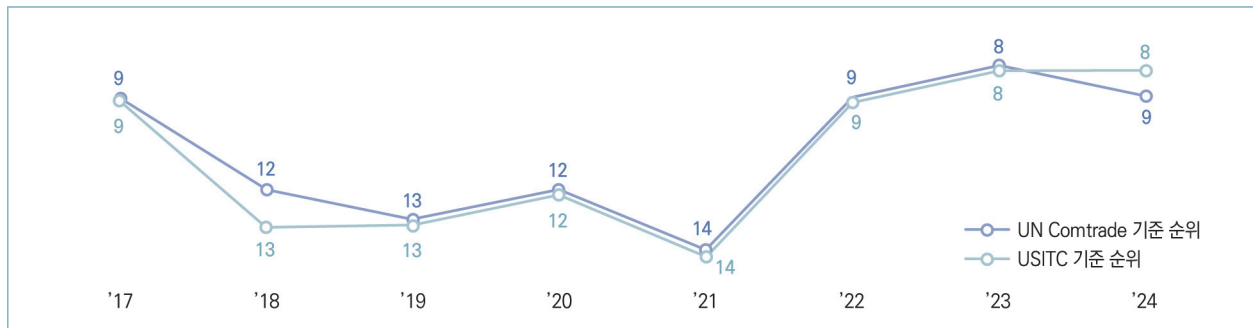


## ■ 추후 상호관세 이외에도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추가적인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고, 대만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1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무역적자 상위 국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섬
- 우리나라도 최근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의 10대 적자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추가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21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국 중 14위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순위가 10위권 이내로 상승하였음

### ▶ 미국 무역적자국 중 한국의 순위

(순위)



주 : 각 출처 간 통계 편차 발생 원인은 [부록1] 참고  
 자료 : UN Comtrade,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 ■ 본 연구는 국제기관 통계(UN Comtrade)를 활용하여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요인이 정량적으로 무역수지 적자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참고 | 연구의 범위

- **기준자료** : 국제기관인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미국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 \* USITC 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입금액 계상기준인 CIF를 사용하지 않고 과세가격 (Customs Value)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단위 비교·분석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 \* UN Comtrade 기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금액(699억 달러)이 USITC(660억)보다 큰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한국에 가장 불리한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분석대상 국가** : 2024년 기준 미국의 상위 10대 적자국
  - \*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캐나다, 일본, 한국, 인도
- **분석시점** :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한 2021년(14위) 대비 2024년(9위)

## II 한-미 무역수지 동향

### ■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한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아닌 수입 증가에 기인

-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2억 달러(-0.3%)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에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 반면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동기간 366억 달러(+37.1%) 늘어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주도

#### 📌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21	'22	'23	'24	'21 → '24
수출	658	715	648	655	-2
수입	988	1,209	1,197	1,355	366
무역수지	-330	-494	-549	-699	-369

자료: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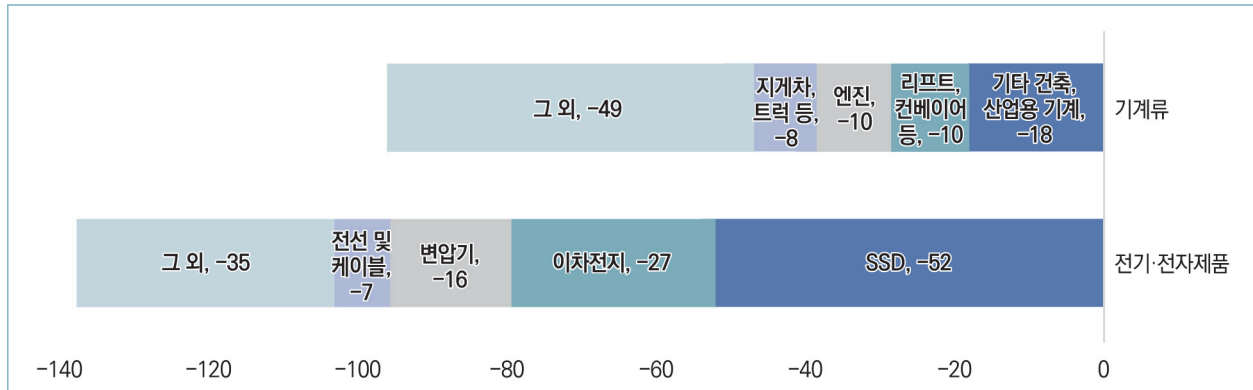
### ■ 미국의 대한국 최대 적자품목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최대 흑자품목은 에너지 원자재

- 2024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자동차·자동차부품(429억 달러 적자), 전기·전자제품(138억 달러), 기계류(96억 달러), 반도체(73억 달러) 순으로 컸음
  - 전기·전자제품 내 세부 품목으로는 SSD, 이차전지, 변압기, 전선·케이블 등이 무역수지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
  - 기계류는 리프트, 컨베이어, 엔진, 지게차 등 건축·산업용 기계를 중심으로 적자 발생
- 흑자 품목은 에너지 원자재(134억 달러 흑자), 농수산물(66억 달러) 등 1차 산품 위주
  - 에너지 원자재 세부 품목별로는 원유(137억 달러 흑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천연가스(38억 달러), 석탄(3억 달러)은 상대적으로 흑자 규모가 작았음



###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 내 세부품목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억 달러)



주 : 품목분류는 HS코드 기준 기타 건축·산업용 기계 8479, 리프트·컨베이어 8428, 엔진 8407, 지게차·트럭 8427, SSD 852351, 이차전지 8507, 변압기 8504, 전선·케이블 8544

자료: UN Comtrade

### 미국의 대한국 품목별 무역수지('24)

(억 달러, %)

품목명	수출		수입		수지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동차·자동차부품	25	3.8	454	33.5	-429
전기·전자제품	26	3.9	164	12.1	-138
기계류	71	10.8	167	12.3	-96
반도체	30	4.5	102	7.6	-73
철강	5	0.8	54	4.0	-49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15	2.4	62	4.5	-46
화학공업제품	73	11.1	115	8.5	-42
가전	2	0.3	34	2.5	-32
섬유·의복·가죽제품	3	0.5	12	0.9	-9
비철금속	12	1.8	18	1.3	-6
가구·조명	2	0.4	8	0.6	-6
무선통신기기	4	0.6	4	0.3	0
선박	0	0.0	0	0.0	0
기타	78	11.8	68	5.0	10
의료·정밀·광학기기	39	5.9	21	1.6	17
농수산물	87	13.2	20	1.5	66
에너지 원자재	185	28.2	51	3.8	134
전품목	655	100.0	1,355	100.0	-699

주 : 품목별 분류 기준은 부록 참고, 에너지 원자재는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을 포함

자료: UN Comtrade

■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기계류, 적자 완화에 기여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와 에너지원자재

-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021년 330억 달러에서 2024년 669억 달러로 369억 달러 증가
- 무역적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자동차·자동차부품('21년 대비 '24년 적자 225억 달러 증가), 기계류(87억), 화학공업제품(54억) 순
- 무역적자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흑자 24억 달러 증가), 에너지원자재(13억), 반도체(8억) 순

📌 미국의 대한국 품목별 무역수지 변동 기여도 ('21년 대비 '24년)

(억 달러)

품목명	수출		수입		수지	
	금액	'21대비	금액	'21대비	금액	'21대비
자동차·자동차부품	25	-11	454	215	-429	-225
기계류	71	-26	167	61	-96	-87
화학공업제품	73	-1	115	53	-42	-54
전기·전자제품	26	1	164	34	-138	-32
농수산물	87	-8	20	6	66	-14
철강	5	-1	54	10	-49	-11
비철금속	12	-1	18	6	-6	-7
의료·정밀·광학기기	39	3	21	5	17	-2
가구·조명	2	0	8	2	-6	-2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15	-3	62	-2	-46	-1
섬유·의복·가죽제품	3	-1	12	-3	-9	2
선박	0	0	0	-4	0	4
가전	2	0	34	-4	-32	4
반도체	30	-1	102	-9	-73	8
기타	78	20	68	8	10	13
에너지 원자재	185	24	51	11	134	13
무선통신기기	4	1	4	-23	0	24
전품목	655	-2	1,355	366	-699	-369

주 : 품목별 분류 기준은 부록 참고, 에너지 원자재는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을 포함, '21대비는 % 증가율이 아닌 금액 기준  
자료: UN Comtrade



## 한-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 분석방법 개요

■ 본 연구는 불변시장점유율(CMS) 모형을 기초로,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 증가를 ①경쟁력요인, ②상품구성요인, ③수요요인으로 분해

- ① **경쟁력요인** : 제품품질·가격·무역환경 등 변화로 인해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하면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킴
- ② **수요요인** : 미국의 경제규모 증가, 수요 활성화 등으로 전체 수입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킴
- ③ **상품구성요인** : 미국 수입구조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한민국 수입 증가·감소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상품(예: 자동차)을 미국이 더 많이 수입하게 되면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킴

### 참고 |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기본모형

$K_j^{2024}$  : 2024년 미국의 j품목 대한민국 수입금액

$W_j^{2024}$  : 2024년 미국의 대세계 j품목 수입액

$\theta_j^{2024}$  : 2024년 미국의 j품목 수입 중 한국의 점유율 ( $= K_j^{2024} / W_j^{2024}$ )

$\alpha_j^{2024}$  : 2024년 미국의 총수입 중 j품목의 비중 ( $= W_j^{2024} / \sum_j W_j^{2024} = W_j^{2024} / W^{2024}$ )

미국의 대한민국 2024년 수입액 - 미국의 대한민국 2021년 수입액

$$= \sum_j (K_j^{2024} - K_j^{2021})$$

$$= \sum_j (W_j^{2024} \theta_j^{2024} - W_j^{2021} \theta_j^{2021})$$

$$= \sum_j (W_j^{2024} (\theta_j^{2024} - \theta_j^{2021}) + \theta_j^{2021} (W_j^{2024} - W_j^{2021}))$$

$$= \sum_j (W_j^{2024} (\theta_j^{2024} - \theta_j^{2021}) + \theta_j^{2021} (W_j^{2024} \alpha_j^{2024} - W_j^{2021} \alpha_j^{2021}))$$

$$= \sum_j (W_j^{2024} (\theta_j^{2024} - \theta_j^{2021}) + \theta_j^{2021} (W_j^{2024} (\alpha_j^{2024} - \alpha_j^{2021}) + \alpha_j^{2021} (W_j^{2024} - W_j^{2021})))$$

$$= \sum_j [W_j^{2024} (\theta_j^{2024} - \theta_j^{2021})] + \sum_j [\theta_j^{2021} W_j^{2024} (\alpha_j^{2024} - \alpha_j^{2021})] + \sum_j [\theta_j^{2021} \alpha_j^{2021} (W_j^{2024} - W_j^{2021})]$$

$$= \sum_j [W_j^{2024} (\theta_j^{2024} - \theta_j^{2021})] + \sum_j [\theta_j^{2021} \alpha_j^{2021} (W_j^{2024} - W_j^{2021})] + \sum_j [\theta_j^{2021} W_j^{2024} (\alpha_j^{2024} - \alpha_j^{2021})]$$

① 경쟁력요인

② 수요요인

③ 상품구성요인

## ■ 나아가 CMS 모형의 응용을 통해 ①경쟁력요인을 ②中 대체효과와 ③실질경쟁력요인으로 한 단계 추가적으로 분해하여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 ② 中 대체효과 : 미국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 한국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현상
- ③ 실질경쟁력요인 : 중국의 대체효과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제품의 실질적인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을 가리킴

### 참고 |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응용을 통한 경쟁력 요인 세부분해

- 모형 응용을 통한 ‘중국 → 한국 대체효과’ 추정
  - 미국 수입시장 내 중국의 점유율이 축소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은 일부 자연스러운 현상임. 예를 들어 2021년 미국의 특정 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입비중이 중국 80%, 한국 15%, 일본 5%였다고 가정하면, 2024년 중국의 비중이 20%로 감소할 시 한국의 비중은 60%, 일본의 비중은 20%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음(중국 외 여타국 간 점유율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
  - 따라서 2024년 실제 한국의 수입비중이 65%라면, 15% → 60%로 비중이 상승한 것은 중국의 비중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체효과이며, 60% → 65%까지 비중이 상승한 것에 실질적인 경쟁력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여기서 중국 비중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한국의 2024년 j품목 비중(60%)을  $\theta_{natural,j}^{2024}$  라고 할 시, 기본 CMS 모형의 경쟁력 요인을 다음과 같이 한 단계 더 분해할 수 있음

$$\sum_j [W_j^{2024}(\theta_j^{2024} - \theta_j^{2021})] = \sum_j [W_j^{2024}(\theta_{natural,j}^{2024} - \theta_j^{2021})] + \sum_j [W_j^{2024}(\theta_j^{2024} - \theta_{natural,j}^{2024})]$$

① 경쟁력요인
② 中 대체효과
③ 실질경쟁력요인

## ■ 마지막으로, CMS 모형과 별개로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함

- 대미투자 확대 영향 :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에 위치한 한국 기업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키며, 미국에 사업장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용 기계·자재, 제조업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자재·중간재 공급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출이 유발

## 1 경쟁력요인 : 149억 달러

↳ A ↳ 中 대체효과 : 60억 달러

↳ B ↳ 실질경쟁력요인 : 89억 달러

## ■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

- 2017년 미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은 2%대 수준에 불과했으나, 수 차례에 걸친 관세 인상으로 최근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12% 내외 수준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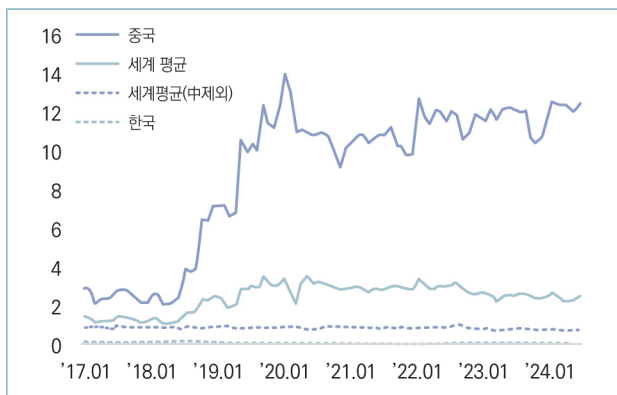
\* '23년 미국의 주요 수입대상국별 가중평균 수입관세율(%)<sup>3)</sup> :

(중국)11.69 (베트남)3.79 (일본)1.30 (한국)0.03 (中 포함 세계 평균)2.53 (中 제외 세계 평균)0.78

- 미국 수입시장 내 중국의 점유율은 2017년 21.9% → 2021년 18.5% → 2024년 13.8%로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2003년(12.5%)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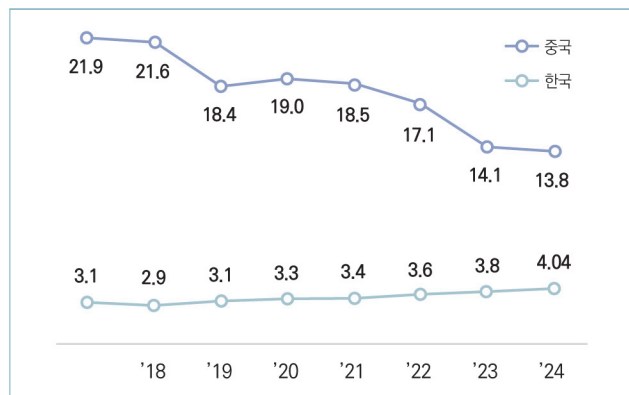
- 반면 우리나라는 2024년 점유율 4.04%를 기록하면서, 1989년(4.17%)<sup>4)</sup>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4%를 돌파

▶ 미국 가중평균 수입관세율 (%)



주 :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세계는 미국의 수입 상위 33개국(2015~2017년 평균 또는 2021~2023년 평균 미국 수입액 기준 상위 30개 국가의 합집합)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USITC,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



자료: UN Comtrade

3)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세계는 미국의 수입 상위 33개국(2015~2017년 또는 2021~2023년 평균 미국 수입액 기준 상위 30개 국가의 합집합)을 기준으로 산정, USITC와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4) UN Comtrade는 1991년 이전의 데이터가 없어, 해당 1989년 수치는 USITC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

## ■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은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부품, 철강, 비철금속 등 제품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

-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4.7%p 하락하였고, 특히 기계류(-11.4%p), 무선통신기기(-10.5%p), 가구·조명(-8.3%p) 등이 감소세를 주도
  - 농수산물(+0.2%p), 에너지 원자재(+0.1%p) 등 일부 품목의 중국 점유율은 확대되었으나, 금액이 작아 전체적인 영향은 미미하였음
- 동기간 미국의 대한국 수입점유율은 0.7%p 증가하였고, 품목별로는 17개 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확대
  - 특히 자동차·부품(+3.1%p), 철강(+1.2%p), 비철금속(+1.2%p) 등 품목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

### ▶ 미국의 품목별 한·중 수입점유율 변화

(단위: 억 달러, %, %p)

품목명	대중국 수입					대한국 수입				
	'21		'24		변화	'21		'24		변화
	금액	점유율(a)	금액	점유율(b)		금액	점유율(a)	금액	점유율(b)	
자동차·부품	173	(6.1)	180	(4.6)	(-1.5)	239	(8.4)	454	(11.6)	(+3.1)
철강	160	(18.4)	137	(16.0)	(-2.4)	44	(5.1)	54	(6.3)	(+1.2)
비철금속	46	(8.6)	38	(7.1)	(-1.5)	11	(2.1)	18	(3.3)	(+1.2)
화학공업제품	216	(7.3)	240	(6.3)	(-1.0)	61	(2.1)	115	(3.0)	(+0.9)
기계류	1,024	(27.6)	720	(16.2)	(-11.4)	106	(2.9)	167	(3.8)	(+0.9)
에너지원자재	2	(0.1)	4	(0.2)	(+0.1)	40	(1.8)	51	(2.0)	(+0.2)
가구·조명	719	(53.9)	530	(45.7)	(-8.3)	6	(0.5)	8	(0.7)	(+0.2)
의료·정밀·광학	141	(13.3)	123	(9.9)	(-3.4)	16	(1.5)	21	(1.7)	(+0.2)
플라스틱·고무	368	(26.6)	276	(21.3)	(-5.3)	64	(4.6)	62	(4.8)	(+0.2)
기타	648	(14.8)	595	(13.3)	(-1.5)	60	(1.4)	68	(1.5)	(+0.1)
농수산물	60	(3.0)	77	(3.2)	(+0.2)	14	(0.7)	20	(0.8)	(+0.1)
전기·전자	602	(27.3)	659	(23.3)	(-4.0)	130	(5.9)	164	(5.8)	(-0.1)
섬유·의복·가죽	374	(29.2)	303	(25.6)	(-3.6)	15	(1.2)	12	(1.1)	(-0.1)
가전	174	(30.4)	141	(25.2)	(-5.2)	38	(6.6)	34	(6.1)	(-0.5)
무선통신기기	616	(55.2)	515	(44.7)	(-10.5)	27	(2.4)	4	(0.4)	(-2.1)
반도체	92	(10.9)	87	(7.4)	(-3.6)	111	(13.2)	102	(8.7)	(-4.5)
선박	2	(5.3)	2	(4.6)	(-0.7)	4	(11.8)	0	(0.1)	(-11.7)
전품목	5,415	(18.5)	4,626	(13.8)	(-4.7)	988	(3.4)	1,355	(4.0)	(+0.7)

주 : 품목별 분류 기준은 부록 참고, 점유율은 해당 품목의 대세계 수입에서 한국·중국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UN Comtrade



■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영향과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면, 공급처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타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늘어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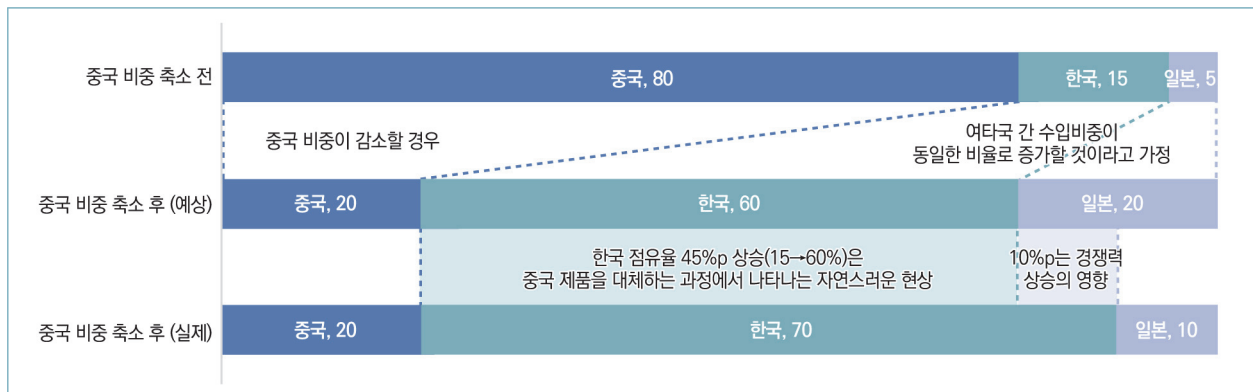
- 국가 간 상대적인 경쟁력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대중국 수입비중이 감소한 만큼 여타국 간 수입비중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존 미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수입비중이 중국 80%, 한국 15%, 일본 5%였을 경우, 중국의 비중이 80 → 20%로 감소하면 한국의 비중은 15 → 60%로, 일본은 5 → 20%로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며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한국의 수입점유율 변화를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영향과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중국 비중 축소에 따른 수입 대체효과 (예시)

(비중 %)



주 : 여타국 간 상대적 경쟁력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수입비중이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액(총 366억 달러) 중 149억 달러는 ㉠경쟁력요인에 기인하며, 그 중 6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하면서 발생, 89억 달러는 ㉢실질경쟁력 상승에 따른 영향임

- 불변시장점유율(CMS) 모형을 응용하여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액(366억 달러)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중국산 제품 대체에 따른 영향이 60억 달러, ㉡실질적 경쟁력 강화에 따른 영향이 89억 달러

- 품목별로는 기계류(<sup>㉠</sup>中 대체효과 +20억 달러), 전기·전자(+9억) 등 중국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체효과가 컸음
- 반도체(<sup>㉢</sup>실질경쟁력 -59억 달러)와 무선통신기기(-30억)는 중국산 제품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함께 하락해 실질경쟁력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 한국의 美 수입시장 점유율('24 → '21, %): (반도체)13.2 → 8.7, (무선통신기기) 2.4 → 0.4
- 자동차 및 부품의 총 수입 증가액 215억 달러 중 <sup>㉠</sup>대체효과로 인한 수입 증가액은 5억 달러에 불과했고, <sup>㉢</sup>실질경쟁력 상승에 따른 영향(+118억 달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액 중 <sup>㉠</sup>경쟁력요인(= <sup>㉠</sup>중국 대체요인 + <sup>㉢</sup>실질경쟁력)

(억 달러)

품목명	대한국 수입액			요인별 분해		
	'21	'24	'21→'24	<sup>㉠</sup> 경쟁력	<sup>㉠</sup> 中 대체	<sup>㉢</sup> 실질경쟁력
자동차·부품	239	454	215	123	5	118
기계류	106	167	61	40	20	20
화학공업제품	61	115	53	36	1	35
철강	44	54	10	11	1	9
기타	60	68	8	6	1	5
비철금속	11	18	6	6	0	6
에너지원자재	40	51	11	6	0	6
농수산물	14	20	6	3	0	3
가구·조명	6	8	2	3	1	2
의료·정밀·광학	16	21	5	3	1	2
플라스틱·고무	64	62	-2	2	4	-2
섬유·의복·가죽	15	12	-3	-2	1	-2
가전	38	34	-4	-3	3	-6
전기·전자	130	164	34	-3	9	-13
선박	4	0	-4	-4	0	-4
무선통신기기	27	4	-23	-24	6	-30
반도체	111	102	-9	-53	6	-59
전품목	988	1,355	366	149	60	89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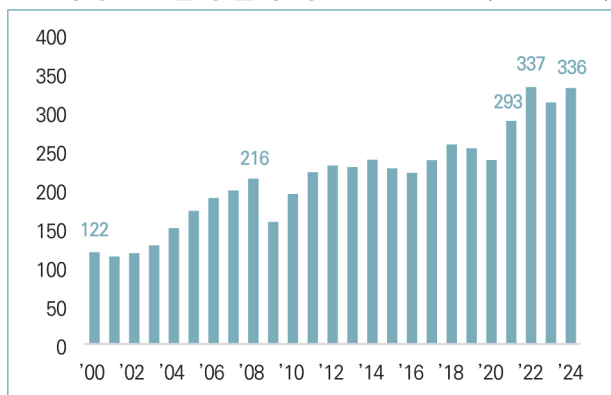
## ② 수요요인 : 143억 달러

### ■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물가 상승, 경제규모의 증가 등으로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해왔음
  - 2000년대 초반에는 수입금액이 1.2조 달러 내외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3.3조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2.75배 가까이 증가
  - 2024년 미국의 대세계 수입금액은 3조 3,568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2021년 대비 수입시장 규모가 14.5% 증가
- 2021년 대비 2024년 수입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국으로부터 증가했는데, 특히 대만(+47.1%), 아일랜드(+40.1%), 한국(+37.1%)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미국 연도별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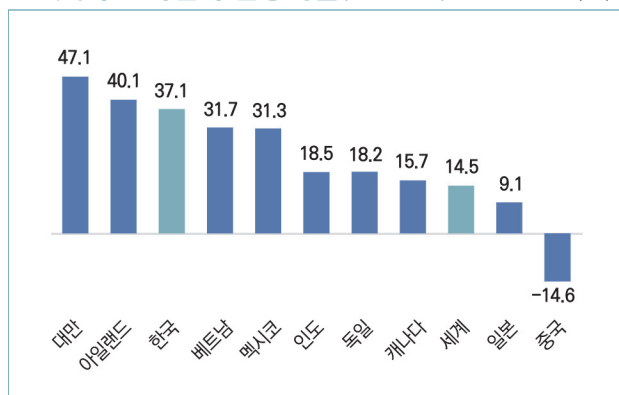
(100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 美 주요국별 수입증가율('21→'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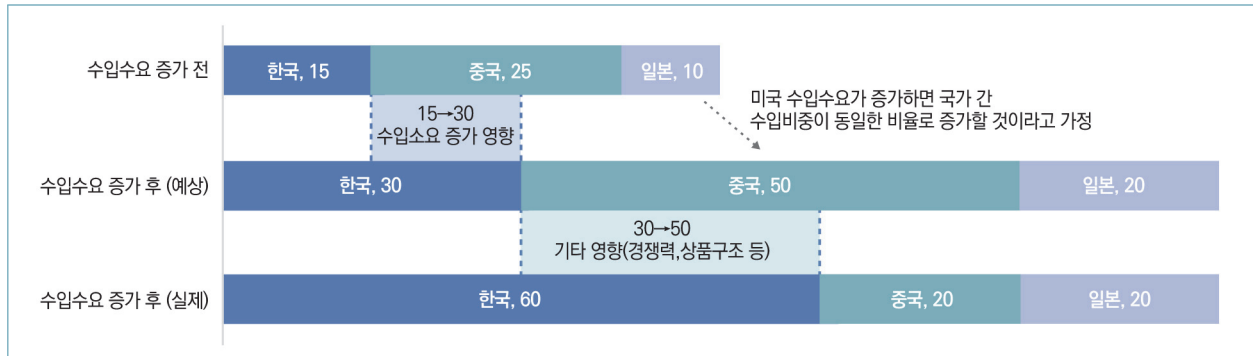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 ■ 미국의 전체적인 수입수요가 증가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도 동반 상승함

- 국가 간 상대적인 경쟁력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대세계 수입이 증가한 만큼 주요국의 수입금액은 서로 간에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존 미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수입금액이 한국 15달러, 중국 25달러, 일본 10달러였을 경우, 수입수요가 2배 증가하면 대한국 수입은 15 → 30달러, 중국은 25 → 50달러, 일본은 10 → 20달러로 동일하게 2배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미국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대한국 수입 요인별 분해 (예시)

(달러)



주 : 국가 간 상대적 경쟁력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수입비중이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액(총 366억 달러) 중 143억 달러는 미국의 전체적인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임

- 앞서 시행하였던 불변시장점유율(CMS) 모형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액(366억 달러)을 요인별로 분해해보면 미국의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이 143억 달러를 차지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수입수요 영향 35억 달러), 전기·전자(19억), 반도체(16억)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미국 수입수요 상승에 따른 영향이 컸음

- 자동차·부품, 기계류 등 품목은 미국의 전체적인 수입수요 증가분 이상으로 대한국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품목별 수입증가율('21→'24, %) : (자동차·부품) 세계 38.3 < 한국 89.7, (기계류) 19.9 < 한국 57.7

-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는 미국의 전체적인 수입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한국 수입이 감소한 품목임

\* 품목별 수입증가율('21→'24, %) : (무선통신기기) 세계 3.2 < 한국 -84.8, (반도체) 39.5 < 한국 -8.0

### 미국·대한국 수입 증가액 중 ②수요요인

(억 달러)

품목명	대세계 수입액			대한국 수입액			②수요요인
	'21	'24	'21→'24	'21	'24	'21→'24	
자동차·부품	2,831	3,915	1,084	239	454	215	35
전기·전자	2,204	2,832	628	130	164	34	19
반도체	846	1,180	334	111	102	-9	16
기계류	3,711	4,449	738	106	167	61	15
플라스틱·고무	1,382	1,294	-88	64	62	-2	9
화학공업제품	2,940	3,781	841	61	115	53	9
기타	4,368	4,458	91	60	68	8	9
철강	869	856	-13	44	54	10	6
에너지원자재	2,239	2,511	272	40	51	11	6
가전	572	558	-13	38	34	-4	5
무선통신기기	1,115	1,151	35	27	4	-23	4
의료·정밀·광학	1,062	1,248	187	16	21	5	2
섬유·의복·가죽	1,279	1,184	-95	15	12	-3	2
농수산물	2,019	2,417	398	14	20	6	2
비철금속	527	534	6	11	18	6	2
가구·조명	1,332	1,160	-172	6	8	2	1
선박	34	38	4	4	0	-4	1
전품목	29,330	33,568	4,238	988	1,355	366	143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 ③ 상품구성요인 : 74억 달러

#### ■ 미국의 수입시장 구성은 자동차·부품, 화학공업, 전기·전자,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음

- 자동차·부품이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7%에서 2024년 11.7%로 2.0%p 상승해 17개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화학공업(+1.2%p), 전기·전자(+0.9%p), 반도체(+0.6%p) 등 한국 주력 제품의 수입비중이 전체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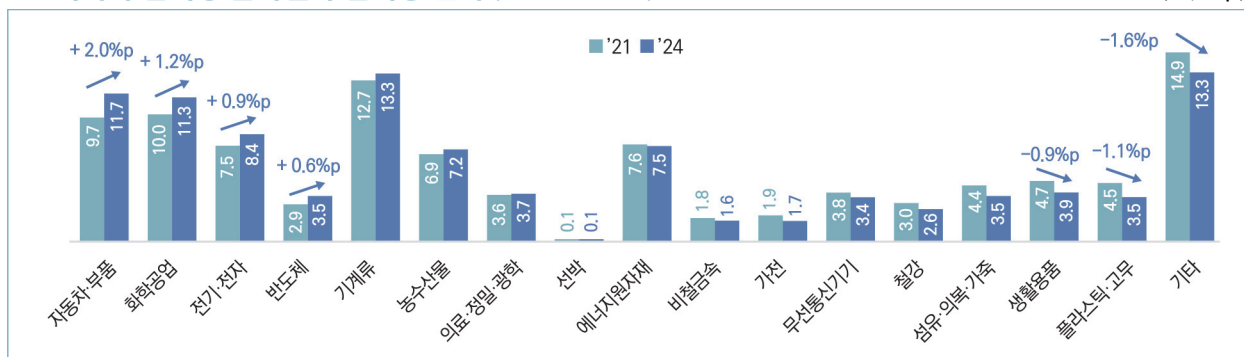
\* 미국 대한국 수입 품목별 비중('24년, %) : (자동차·부품) 33.5, (화학공업) 8.5, (전기·전자) 12.1, (반도체) 7.6

- 반면 가구·조명(-1.1%p), 섬유·의복·가죽제품(-0.6%p) 등 품목은 비중이 하락했으나, 해당 품목들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작아 영향이 미미

\* 미국 대한국 수입 품목별 비중('24년, %) : (가구·조명) 0.6, (섬유·의복·가죽) 0.9

#### ▶ 미국 수입시장 품목별 수입비중 변화 ('21년 → '24년)

(%, %p)



자료: UN Comtrade

#### ■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액(총 366억 달러) 중 74억 달러는 ③미국의 수입상품 구성 변동에 따른 영향임

-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수출상품이자, 미국의 수입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자동차·부품의 ③상품 구성요인 영향이 +57억 달러로 가장 컸음
- 반면 플라스틱·고무(③상품 구성요인 -13억 달러), 철강(-7억), 가전(-6억) 등 품목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비중이 축소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도 동반 감소하였음



### 미국 대 한국 수입 증가액 중 ③상품구성요인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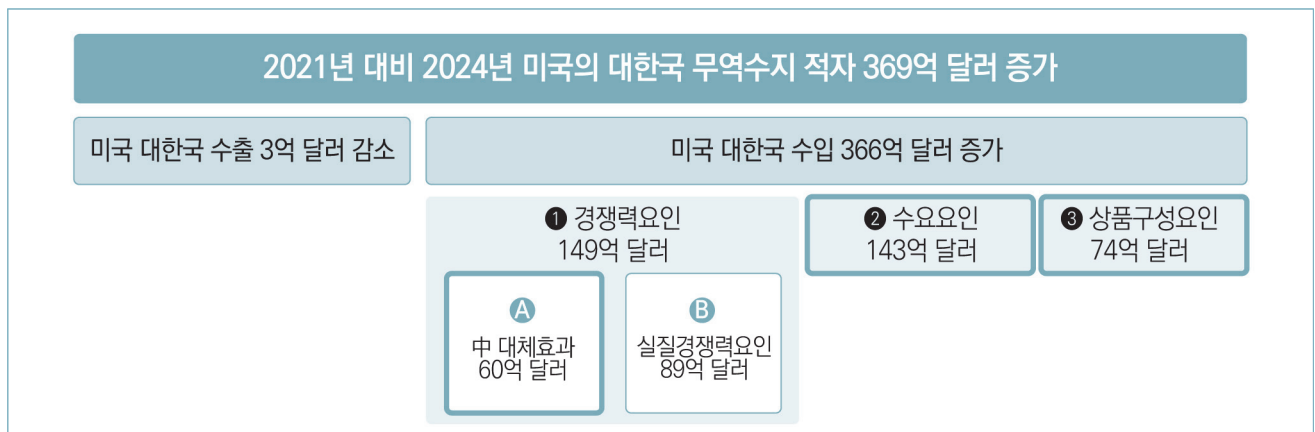
품목명	품목별 수입비중(세계)			품목별 수입비중(한국)			③상품 구성요인
	'21	'24	'21→'24	'21	'24	'21→'24	
자동차·부품	9.7	11.7	2.0	24.2	33.5	9.3	57
반도체	2.9	3.5	0.6	11.3	7.6	-3.7	28
전기·전자	7.5	8.4	0.9	13.2	12.1	-1.1	18
화학공업	10.0	11.3	1.2	6.2	8.5	2.2	9
기계류	12.7	13.3	0.6	10.7	12.3	1.6	6
농수산물	6.9	7.2	0.3	1.4	1.5	0.1	1
의료·정밀·광학	3.6	3.7	0.1	1.6	1.6	0.0	1
선박	0.1	0.1	0.0	0.4	0.0	-0.4	0
에너지원자재	7.6	7.5	-0.2	4.1	3.8	-0.3	-1
비철금속	1.8	1.6	-0.2	1.1	1.3	0.2	-1
가구·조명	4.5	3.5	-1.1	0.6	0.6	0.0	-2
무선통신기기	3.8	3.4	-0.4	2.7	0.3	-2.4	-3
섬유·의복·가죽	4.4	3.5	-0.8	1.5	0.9	-0.6	-3
가전	1.9	1.7	-0.3	3.8	2.5	-1.3	-6
철강	3.0	2.6	-0.4	4.5	4.0	-0.5	-7
기타	14.9	13.3	-1.6	6.1	5.0	-1.1	-7
플라스틱·고무	4.7	3.9	-0.9	6.4	4.5	-1.9	-13
전품목	100.0	100.0	0.0	100.0	100.0	0.0	74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 요약

-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369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이 중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가 366억 달러만큼 증가하면서 적자 확대를 주도하였음
-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 366억 달러 중 ①경쟁력 요인이 149억(=①A 中 대체효과 60억 + ①B 실질경쟁력요인 89억), ②수요요인이 143억, ③상품구성요인이 74억 달러를 차지
-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분 366억 달러 중 277억 달러<sup>①+②+③</sup>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동반하거나, 미국 수입수요가 증가·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임
  - ① (중국 대체효과) 미국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였고,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미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21년 → '24년, %): (중국) 18.5 → 13.8, (한국) 3.4 → 4.04
  - ② (수요요인)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동반 증가하였음  
\*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2021년 2.93조 달러 → 2024년 3.36조 달러로 14.5% 증가
  - ③ (상품구성요인) 미국의 수입이 자동차·부품, 화학공업, 전기·전자,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  
\* 美 품목별 수입비중('21→'24, %): (자동차·부품) 9.7→11.7, (화학공업) 10.0→11.3, (반도체) 2.9→3.5

#### ▶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증가 요인별 분석 - CMS 분석 결과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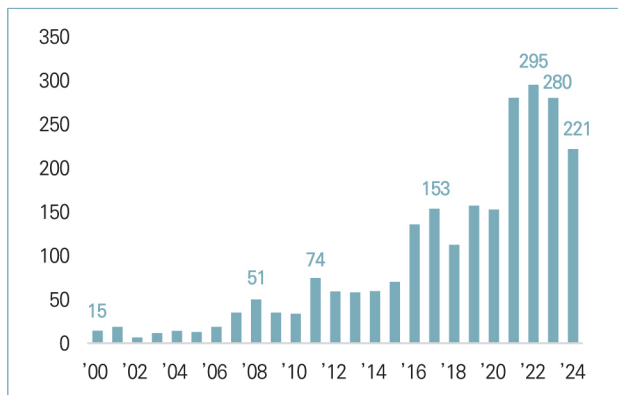
## 대미투자 확대 영향

## ■ (대미투자 동향)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임

- 우리나라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
-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은 미국(비중 34.5%), 케이만군도(10.4%), 룩셈부르크(9.4%), 캐나다(5.9%) 순이며, 미국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 연속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24년)

(억 달러, %)

순위	국가	투자금액	비중
1	미국	221	34.5
2	케이만군도	66	10.4
3	룩셈부르크	60	9.4
4	캐나다	38	5.9
5	싱가포르	27	4.2
-	합계	64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해외직접투자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을 유발

-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각종 장비·소재 등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발생
  - 예를 들어 해외에 이차전지 공장을 신설할 경우, 해당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계·자재 등이 필요하며, 완공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양극재 등 소재를 공급해야 함
  -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대미 수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유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sup>5)</sup>

5)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4.5.20.),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효과*

## ■ (주요국 중간재 수입비중)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8%로, 이는 미국의 상위 10대 적자국 중 3번째로 큰 비중임

- 미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비중(46.8%)은 아일랜드(71.1%), 대만(55.1%)에 이어 3번째로 크며, 세계 평균 비중 38.4%도 상회하고 있어 미국 내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중간재는 수입 이후 미국 현지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재 대비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유리

- 미국의 對아일랜드 중간재 수입 비중이 71.1%로 매우 높지만, 중간재로 분류된 품목 대부분은 의약품으로 실질적인 산업 부가가치 창출은 제한적일 수 있음

- 미국의 對아일랜드 상위 2대 수입품목은 면역혈청·백신(총수입 대비 비중 36.7%), 호르몬 및 유도체(14.9%)로, 중간재의 대부분이 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음<sup>6)</sup>

\* 미국의 대아일랜드 중간재 수입비중 71.1% 중 51.6%p 이상이 의약품으로 구성

- 중간재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부분품의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만(33.7%)에 이어 2위를 차지

\* 부품·부분품은 반제품에 비해 최종재로 만들기까지 요구되는 가공단계가 많아 상대적으로 경제기여도가 높음

### ▶ 미국의 10대 적자국에 대한 가공단계별 수입비중 ('24)

(%)

국가명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			미분류
			부품·부분품	반제품		자본재	소비재	
아일랜드	0.1	71.1	0.7	70.4	21.5	3.1	18.4	7.2
대만	0.1	55.1	33.7	21.4	42.2	37.3	5.0	2.6
한국	0.1	46.8	24.6	22.1	48.1	15.2	32.9	5.1
독일	0.6	43.1	18.8	24.3	49.5	25.6	23.9	6.8
인도	1.0	41.4	13.7	27.7	50.2	15.0	35.1	7.5
일본	0.2	41.0	23.2	17.8	55.7	23.7	32.1	3.0
캐나다	28.7	35.1	9.7	25.4	27.8	10.2	17.6	8.4
멕시코	3.3	34.6	21.7	12.9	58.8	33.8	25.0	3.3
중국	0.3	32.5	14.4	18.2	64.5	34.1	30.4	2.6
베트남	0.4	26.9	15.1	11.8	71.0	35.4	35.6	1.6
세계	6.6	38.4	15.5	22.8	49.1	22.5	26.6	5.9

주 : Gaulier, Lemoine and Unal-Kescenscii(2004), *China's integration in Asian production entworks and its implications* 기반으로 가공단계별 분류

자료: UN Comtrade

6) HS4단위 기준, 면역혈청·백신은 HS 3002, 호르몬 및 그 유도체는 HS 2937로, 둘 다 반제품으로 분류됨

## ■ (현지조달 비중) 향후 미국으로의 투자·진출이 장기화될수록 현지 조달 비중이 늘어나고,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매입을 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반면, 현지 매입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3.8%p 확대

- 진출 초기 단계에서는 현지에 확보된 공급처가 적기 때문에 주로 한국으로부터 물자를 조달하지만, 대미 투자가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현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현지 조달 비중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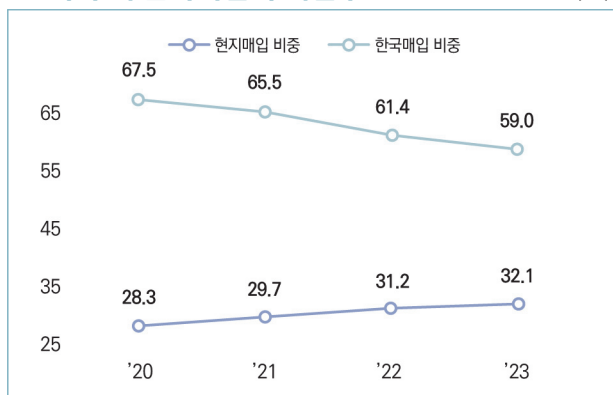
- 현지 매입 비중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현지 ‘관계사’가 아닌 ‘기타’ 기업임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은 관계사와의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활발하게 찾아 매입을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20년 대비 2023년 현지 관계사로부터의 매입비중은 11.0% → 9.1%로 감소한 반면, 현지 기타 기업으로부터의 매입비중은 17.3% → 23.0%로 큰 폭 증가

- 따라서 한국의 대미수출 증가분 중 일부는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지로부터의 매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불균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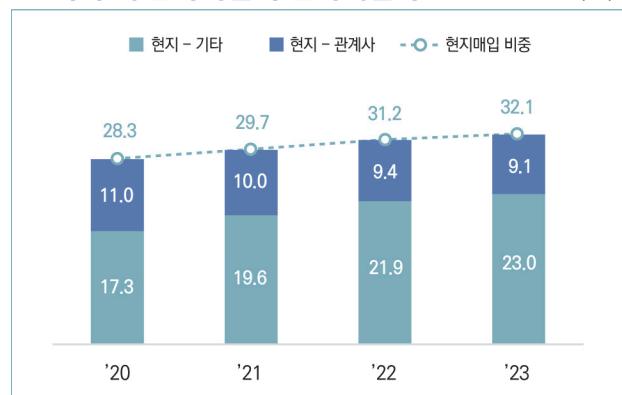
\* 대미투자액(기간평균, 억달러) : ('00-'10) 23 → ('11-'15) 59 → ('16-'20) 130 → ('21-'24) 269

### 📌 미국 내 한국기업의 매입구조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미국 내 한국기업의 현지매입 구조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IV

##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의 원인이 비관세 무역장벽과 불공정 관행이라 지목<sup>7)</sup>했으나, 최근 적자 확대의 상당 부분은 <sup>①</sup>중국 대체효과, <sup>②</sup>미국 수입수요 증가, <sup>③</sup>미국 수입구조 변화 등으로 설명이 가능함

-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366억 달러 증가했는데, 그 중 277억 달러는 <sup>①</sup>중국 대체효과, <sup>②</sup>미국의 수입수요 증가 및 <sup>③</sup>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임
- 또한 2021년부터 한국의 대미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미 수출 유발
- 위 요인들은 미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 기반 강화 등 긍정적 경제기여를 동반하며, 불공정 관행에 따른 인위적인 무역수지 불균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처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핵심 파트너 국가임

- 미국은 14년 연속(2011~2014)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발표 내용

기업	발표시점	내용
삼성전자	'24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 건설</li> <li>• 투자금액 초기 발표당시 170억 달러 → 440억 달러로 증액</li> <li>• 최첨단 파운드리(전공정) 및 패키징(후공정) 제조기반 구축</li> </ul>
LG에너지솔루션	'24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애리조나주에 7.2조원 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li> <li>•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ESS용 LFP 배터리 생산 예정</li> <li>•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단일 배터리 공장 기준 최대 투자규모</li> </ul>
현대차	'25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8년까지 210억 달러 투자 계획</li> <li>• 자동차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61억, 미래산업·에너지 63억</li> </ul>
대한항공	'25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기업 보잉(항공기 제조사), GE(엔진)와 327억 달러 투자협력</li> <li>• 보잉 항공기 구매 249억 달러, GE 엔진 구매 및 정비 78억 달러</li> </ul>

자료: 매일경제(2025.03.24.), 대한항공, 하늘길 경쟁에 48조 질렀다...보잉·GE 손잡고 신모델·엔진 확보, 한경(2024.04.04.), LG엔솔, 거침없는 진군...7조 美 공장 착공, 한경(2024.04.06.), TSMC에 질 수 없다...삼성, 美 반도체 공장에 60조 투자, 현대자동차그룹(2025.03.28.), 현대자동차그룹, 미국에 전략적 투자...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투자

7) "Countries including China,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have pursued policies that suppress the domestic consumption power of their own citizens to artificially boost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export products. Such policies include regressive tax systems, low or unenforced penalties for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olicies intended to suppress worker wages relative to productivity." (백악관 Fact Sheet, 2025.4.2.)



-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이유로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상실, ▲첨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 약화, ▲핵심 공급망 약화, ▲국방·산업 기반의 해외 적성국 의존도 심화 등을 들었으나<sup>8)</sup>, 한국은 해당 분야에서 미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

#### 한국의 대미 경제 기여도

구분	내용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14년 연속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처</li> <li>• 2023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한국(그린필드 투자 기준)</li> </ul>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한국 기업이 투자 및 리쇼어링을 통해 미국 내에서 신규 창출한 일자리는 2만여 개로 1위를 차지(2023년 외국기업 총 창출 일자리 중 14%)</li> </ul>
(첨단) 제조업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있어 미국 내 제조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li> </ul>
공급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취약점을 한국산 제품이 보완</li> </ul>
국방·산업 해외 적성국 의존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군함 건조, 보수·수리·정비(MRO) 사업 등 다방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이며, 한·미 동맹으로 맺어진 굳건한 군사동맹국임</li> <li>• 미군이 첨단 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등한시한 전차, 포 등 재래식 무기를 해외로부터 조달할 경우 K-방산의 경쟁력 부각</li> </ul>

자료 : Financial Times(2024.9.18.), *South Korea emerges as a top US investor as China tensions escalate*, Reshoring Initiative(2023), *Reshoring Initiative 2023 Annual Report*, 머니투데이(2025.3.21.), *중국에 역전 급한 천조국...한국, 도와줘 트럼프 SOS 이유 있었다*, 동아일보(2024.11.21.), *트럼프 美무기고 텅 비었다...K방산 1000조 시장 기회*

#### ■ 우리나라의 대미투자는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었으며, 향후 미국으로의 투자·진출이 장기화되면서 한-미 무역 불균형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21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이후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
-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생산이 본격화·장기화될수록 한국 직수입은 줄어들고, 현지 조달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미 무역 불균형도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함
  - 실제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매입을 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반면, 현지 매입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3.8%p 확대
  - 특히 지난 3월 현대차에서 발표한 대미 투자 계획은 미국 현지에 물류, 철강, 자동차부품, 완성차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자동차 무역적자 완화가 예상

8)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S. goods trade deficits have led to the hollowing out of our manufacturing base; resulted in a lack of incentive to increase advanced domestic manufacturing capacity; undermined critical supply chains; and rendered our defense-industrial base dependent on foreign adversaries." (The White House, 2025.4.2.)

## 부록1 무역통계 편차 발생 원인

### ① 집계금액의 차이

- UN Comtrade는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FOB(물품이 선박에 적재할 시 매겨진 가격), 대한국 수입을 CIF(FOB 금액에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로 계상하므로 통상적으로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크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FAS(물품이 선박에 적재되기 직전의 가격), 대한국 수입을 과세가격(Customs Value) 기준으로 계상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CIF 금액 대비 수치가 작음
- 한국 관세청 자료는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미국의 대한국 수입)을 FOB, 한국의 대미국 수입(=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CIF 기준으로 산정함. 따라서 관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측정한다면, 미국의 대한국 수입을 FOB, 대한국 수출을 CIF로 계상하게 됨

출처	미국의 대한국 수출금액 집계기준	미국의 대한국 수입금액 집계기준
UN Comtrade	FOB	CIF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FAS	과세가격(Customs Value)
관세청	CIF	FOB

### ② 제3국 경유

- 수출은 목적지를 기준으로, 수입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집계됨
- 따라서 물품의 이동경로가 한국 → 멕시코 → 미국일 때 UN Comtrade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해당 물품을 미국의 대한국 수입으로 간주하지만, 한국 관세청 자료는 해당 물품을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로 기록함
- 반대로 물품의 이동경로가 미국 → 멕시코 → 한국일 때 UN Comtrade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해당 물품을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로 간주하지만, 한국 관세청 자료는 해당 물품을 한국의 대미국 수입으로 기록함

출처	한국 → 멕시코 → 미국	미국 → 멕시코 → 한국
UN Comtrade	미국의 대한국 수입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의 대한국 수입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
관세청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 멕시코의 대한국 수입)	한국의 대미국 수입 (= 미국의 대한국 수출)

### ③ 통관시점의 불일치, 중개업체 마크업(Mark-up), 단순오류 등 기타 요인

- 한국에서 2023년 12월에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 2024년 1월에 도착하는 경우 한국 관세청은 2023년 수출로, UN Comtrade와 USITC는 2024년 수입으로 집계하면서 시점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 외 중개업체를 통한 재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업체의 가격 인상(마크업)에 따라 한국 관세청에서 매긴 수출금액과 UN Comtrade, USITC에서 매긴 수입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기재오류 등도 존재

부록2

품목분류 기준

품목명	분류기준(HS 코드)
농수산물	01~24
에너지 원자재	27
화학공업제품	28~38
가구·조명	94~95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9~43
섬유·의복·가죽제품	50~63
철강	72~73
비철금속	74~80
기계류	84(가전, 반도체에 해당하는 HS코드 제외)
가전	8415, 8418, 8450, 8528, 8529
전기·전자제품	85(가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에 해당하는 HS코드 제외)
무선통신기기	8517
반도체	8541, 8542, 847330
자동차·자동차부품	87
선박	89
의료·정밀·광학기기	90
기타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품목

# REFERENCES

## 데이터베이스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한국수출입은행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 언론자료

Financial Times(2024.09.18.), *South Korea emerges as a top US investor as China tensions escalate*

The White House(2025.04.02.),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USTR(2025.04.), *Reciprocal Tariff Calculations*

동아일보(2024.11.21.), *트럼프 美무기고 텅 비었다... K방산 1000조 시장 기회*

매일경제(2025.03.24.), *대한항공, 하늘길 경쟁에 48조 질렀다...보잉·GE 손잡고 신모델·엔진 확보*

머니투데이(2025.03.21.), *중국에 역전 급한 천조국...한국, 도와줘 트럼프 SOS 이유 있었다*

한경(2024.04.04.), *LG엔솔, 거침없는 진군...7조 美 공장 착공*

한경(2024.04.06.), *TSMC에 질 수 없다...삼성, 美 반도체 공장에 60조 투자*

현대자동차그룹(2025.03.28.), *현대자동차그룹, 미국에 전략적 투자...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투자*

## 논문 및 보고서

Gaulier, Lemoine and Unal-Kescenscii(2004), *China's integration in Asian production networks and its implications*

Reshoring Initiative(2023), *Reshoring Initiative 2023 Annual Report*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4.05.20.),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효과*